

## 이디스 워튼의『여름』에 나타난 종교적 성찰

정신희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본 논문은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여름』(*Summer* 1917)에 내포된 종교적 성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토마스 디슨(Thomas Dixon)에 따르면, “과학과 종교의 표면상의 쟁점은 특정한 종교적 믿음과 과학 지식의 특정한 측면이 지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Dixon 16)이다. 이처럼, 과학이 종교와 도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논의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레고리(Gregory)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획기적 이득인데 반해, 그것이 종교적인 힘(Power)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만 어느 순간 그 힘을 발휘함을 캠벨의 시를 인용한다.

이 영혼은.../생각하지 않는다, 태양, 그것은 희미해 질 것이다/네가 정말 어두워질 때!/ 아니! 그것은 다시 살아나서 비출 것이다. / 빛줄기에게 알려지지 않은 천상의 환희 속에서, / 신에 의해 다시 숨을 쉰다“. (Gregory 157 재인용)

신은 “특별한 위기에 등장했다가 이내 퇴장” (Dixon 98)하듯이 인간세계의 틈새에 등장하는 신의 계시, 즉 기적은 특정한 개인들의 지위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두 신학자들은 기적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는 어떤 사건에 대한 단순한 종교적인 명칭, 즉 기적은 신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는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특정한 과정이 아니라 그 산물인 사랑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Dixon 78-79).

## II

『여름』에 등장하는 하니(Lucious Harney)는 뉴욕에서 전통가옥을 연구하기 위해 왔다.<sup>1)</sup> 그는 변화무쌍한 노스도머(North Dormer)에서 변화의 시도를 한다. 도서관의 통풍은 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학적 사고와 기술이 적용됨을 시사한다. 채러티(Charity Royall)가 살고 있는 노스도머(North Dormer)는 지루하고 자연이 덜 훼손된 장소이다. 본래 그녀는 산(Mountain)출신으로 감옥에 들어간 생부가 로열 씨에게 다섯 살인 그녀가 기독교적 영향을 받고 자라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이에 변호사Royall은 그녀의 보호자가 된다. 그녀가 문명사회를 처음 접하고 환상을 갖게 된 계기는 네틀턴(Nettleton)출신인 어느 목사가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스도머에 오면서이다. 그 목사는 노스 도머의 청년들을 네틀턴에 데려가 성경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보여주지만

1) 『여름』의 작가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 1862-1937); 1897년에 Decoration of Houses를 건축가 오그덴 코드먼(Ogden Codman)과 공동 작업하여 집필할 정도로 건축에 조예가 상당했다.

채러티는 오직 기계문명의 신기함에만 몰두한다.

네틀턴은 채러티에게 ‘환상적인 곳’으로서 뉴욕출신이며 건축가인 하니(Harney)와 밀애를 즐기는 곳이다. 그 곳은 노스도머와는 전혀 다른 신세계이며 가게 유리창 안에는 밀랍인형들이 전시되어 있고 근처 산부인과 벽돌건물은 채러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언니 줄리아가 죽을 뻔한 무서운 장소이다. 순박한 시골처녀들은 그곳에서 그녀들의 고향에 잠시 들린 도시청년들과 어울린 결과 비참한 일인 낙태를 겪는다. 산부인과 의사 머클(Dr. Merkle)은 의치(false teeth), 가발(false hair), 비인간성(false murderous smile-what was she offering her but immunity from some unthinkable crime?(146))으로 기술문명의 메타포이다. 의술은 환자와의 상호적 교류에 역행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데 금테두리 쇼파는 산업화로 인한 물질만능주의를 시사한다.

머클 박사는 도시 청년과의 풋사랑으로 인한 순박한 처녀의 임신은 머클 박사의 낙태를 강요하여 자연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기계문명의 괴물이다. 이에 반항하는 채러티는 모성애를 느끼는 동시에 병원을 빠져나와 순전히 자신이 잉태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모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기독교를 전도하는 복음 천막을 발견하며 하마터면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던 자신을 돌아본다. 채러티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5살 때 자신을 버린 생모를 찾아 산으로 가는 도중 장례식 때문에 올라가는 목사를 만나게 되지만<sup>2)</sup>, 죽은 모습의 생모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아무에게나 버릴 정도로 무심한 여인으로 알았던 생모를 절실히 이해하게 된다.

“그토록 그녀의 어머니의 잘못이었는가? ... 어느 어머니인들 자신의 아이를 그런 삶에서 구하고 싶지 않겠는가? 채러티는 자신의 아이의 미래를 상상하니 눈물이 그녀의 아픈 두 눈 에 샘솟더니 얼굴위에 흘러내렸다.”

“Was her mother so much to blame? ... What mother would not want to save her child from such a life? Charity thought of the future of her own child, and tears welled into her aching eyes, and ran down over her face.” (170)

채러티는 하니가 남기고 떠난 푸른 브로치를 검진의 대가로 맡긴다. 의사는 만약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낙태를 시도했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는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채러티를 협박하고 (“if you can't pay me I'll send the bill to your folks”(147)), 결국 채러티는 브로치를 찾기 위해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지불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본 목적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기 위함이지만 이면에 비인간적 측면을 드러낸다. 하지만, 하니의 고향인 뉴욕(New York)은 과학·기술이 현저히 발달한 곳이자 미지의 세계이다.

“... 그들 사이의 격차는 너무 극심해서, 그리고 가로질러 뻗어있는 그들의 정열인 다리는 무지개처럼 실체가 없다.

“... the gulf between them was too deep, and that the bridge their passion had flung across it was as insubstantial as a rainbow”.

2) 채러티의 고향인 산(Mountain)은 목사가 사람이 죽어야만 올라갈 정도로 인간답게 살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곳이고 무법자들의 본거지이다.

“Fifth Avenue: an insurmountable barrier between them”. (138-139)

### III

기술문명을 세우는데 하나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산으로 내몰려 그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산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는 가엾은 여인 채러티의 생모는 기술문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채러티는 산을 멀리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태어난 곳이고 친근함을 주는 곳으로 산에서 가까운 곳의 언덕에서 자연과 덩굴고 숨쉬는 순수한 소녀이다. 그녀는 고택을 관찰하러 출장을 온 하니의 스케치를 돕기 위해 그에게 언덕과 산 바로 아래 지역을 소개하기도 한다. 하니에게 당당하게 자신은 그 곳의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술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뉴욕출신과 자연 그대로의 지역 출신 채러티의 만남은 운명적인 대립 관계이다. 그녀는 산에서 죽어있는 생모의 비참한 모습과 산 사람들의 열악한 삶의 모습에서 모성애의 결핍으로 생각해왔던 생모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녀가 높은 하늘이 그들을 갈라놓듯이 그녀가 파여 있는 무덤 안으로 내려지는 것을 보고 그 가엾은 생명체로부터 멀어지는 듯 느낌이 들었다.

She herself felt as remote from the poor creature she had seen lowered into her hastily dug grave as if the height of the heavens divided them. (169)

채러티가 복중의 아이를 낙태의 시도는 과학 발달의 폐해의 단면을 보여준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21세기에 인간과 기술은 별개가 아닌 융합으로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종교적 성찰이 절실하다.

## 인 용 문 헌

- Ammons, Elizabeth. *Edith Wharton's Argument with America*.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2.
- Bell, Millicent.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Edith Whar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Howe, Irving.(Ed) *Edith Whart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 Wharton, Edith. *A Backward Glance: An Autobiography*. New York: Harper and Rowe, 1975.
- Wharton, Edith. *Summer*. New York: Penguin Books, 1993
- Wolff, Cynthia Griffin. *A Feast of Words: The Triumph of Edith Wharton*. New York: Perseus Books, second edition 1994.

## 정신희 교수의 이디스 워튼의『여름』에 나타난 종교적 성찰

황인경  
(성균관대 인문학 선임연구원)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설정하였는데 과연 이 소설이 왜 여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 이 소설의 제목이 『여름』일까? 뉴잉글랜드 지방의 한 여름에서 복잡한 주인공들의 관계가 얽혀져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여름이라는 이미지는 신록이 우거진 곳에서 오히려 햇빛이 차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까, 여자 주인공인 Chrity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생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Chrity가 이 소설의 중심인물이며 주인공인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이 채러티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주인공의 설정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갈등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에 서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사회적인 약자인지, 그러한 약자를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하다.

낙태라는 생명존중의 위반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자립의 부재로 인한 싱글맘의 독립적인 가치가 희석되어 가고 있다. 산업화와 기계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이 잃어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산업화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가장 찬란한 햇살을 받아야할 태아는 세상의 빛을 못 보고 그냥 여름의 신록 속의 그늘 속으로만 가려져야만 되는 것인가. 인간의 불확실한 미래가 산업화가 대신해주고 만족해 주는 것인가,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체와 그러한 생명체의 귀중함 때문에 태어난 채러티는 그 어느 한 곳에 있어도 안정적일 수가 없다. 한 여성에게 다가오는 어두움이 산업화와 기계화의 혜택으로 광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위의 논문에서 왜 작가 『여름』이라는 제목을 가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에피소드가 소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Another reader's comment is as follows:

This is a tale that comes to life during a Summer, and the descriptions of the airy landscape under the sun are amongst the most enrapturing aspects of this novel.

And then there is a story of conflict. First and foremost, of the heroine, Charity Royall, who is not a heroine at all. She is in conflict with her past, with her present, and, she suspects, with her future. She rebels against those who, charitably, have offered her a refuge and a life, granting her name as a promising and foreboding start.

The story seems to follow a straight path, a well-known path, but too many doubts, too many uncertainties, too many false impressions, too many unknowns, too many remote possibilities, make that path seem more and more like a treacherous chimeras, and the only way left is to go back to the beginning.

And even if this could be taken as a lesson that one just has to accept things as they are and shun fantasies, I could not but feel that the main character ultimately

fails. And even if she "had never known how to adapt herself, she could only break and tear and destroy" the often analyzed but still unresolved plights of women with their limited choices remain depressingly unresolved.